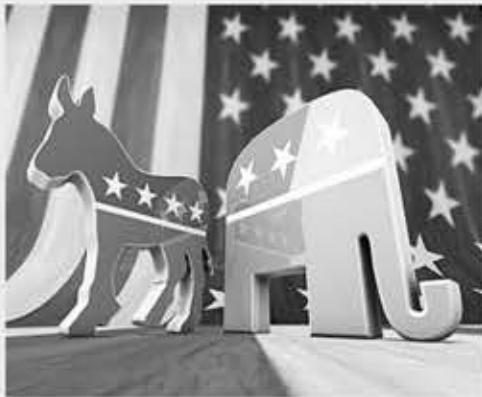


‘이념 전쟁’에 들로 쪼개진 미국



▲ 미국의 지역별 정책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미국에서 한 정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동시에 장악한 주가 크게 늘어난 이후 정책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5월 ‘연합뉴스’가 뉴욕타임스(NYT)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작년 치러진 중간선거로 미국에서 주지사 소속 정당과 주 상·하원 다수당이 같은 주는 39곳이 됐다. 이는 3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후 입법 시즌을 맞아 낙태부터 총기 규제, 환경, 성소수자 문제까지 논쟁적인 사회 현안과 관련해 공화당이 장악한 주는 보수적인 정책을, 민주당이 차지한 주는 더욱 진보적인 정책을 법제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22개 주 가운데 많은 주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거나 제한했으며, 낙태에 대한 규제나 학교 내 성 관련 교육 제한을 밀어냈다. 민주당이 이끄는 17개 주는 총기 규제 강화나 탄소배출 제한, 낙태권 보장, 성전환자 의료보장 등에 나섰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현안과 의제들을 놓고 주간에 분열이 더욱 커진 셈이다.

한술 더 떠 일부 주에서는 반대 당 소속이거나 그와 비슷한 성향의 선출직 고위 공무원, 기관장을 견제하거나 카운티·도시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NYT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자녀 양육비에 허리 ‘휘청’

미국 부모들이 자녀 1인당 연평균 2만1,000달러의 양육비를 지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월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스마트에셋은 미국 전역 381개 대도시의 연간 자녀 양육비를 조사한 결과 보육비용 9,051달러를 합쳐 매년 총 2만1,000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성인 2명으로 구성된 가구에 아이 1명이 생길 때 투입되는 식료품, 주거, 보건 지출 등 한계추가비용을 고려해 추산한 결과다.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지역은 캘리포니아주로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크루즈, 샌호세, 나파, 산타로사 등 캘리포니아주 주요 도시 5곳이 미국 내 양육비 상위 10개 지역 중 절반



▲ 미국 부모들은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연평균 2만 1,000달러를 지출한다. 일러스트=shutterstock

을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의 연간 자녀 양육비가 3만5,647달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육비가 1만6,317달러, 식료품비가 2,111달러, 주택 비용이 1만499달러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산타크루즈(3만3,877달러)와 샌호세(3만3,228달러) 순으로 1~3위 모두 캘리포니아주 소재 도시가 차지했다.

반면 남부 지역은 자녀 양육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가 가장 적게 드는 도시 10곳 중 5곳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위치했다. 테네시주의 모리스타운은 연간 양육비가 1만4,577달러로 미국에서 양육비가 가장 적은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뉴욕 일대 캐나다 산불 연기로 대기 오염 최악

캐나다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뉴욕을 비롯해 북동부 일대를 덮치면서 대기 경보가 발령됐다.

7일 뉴욕 일대 하늘은 대낮에도 어둡게 느껴질 정도로 노란색 연무에 뒤덮였고, 뉴욕주는 공기질이 급격히 악화되자 주민들의 야외 활동 자체를 당부하는 등 비상 대책에 나섰다.

전날 오후부터 대기 경보가 내려졌던 뉴욕시 일대 하늘은 이날 낮부터 낙엽이 태우는 듯한 매캐한 냄새가 나는 연기에 짙게 뒤덮이기 시작했다. 뉴욕 시민들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동했고, 곳곳에서 옥의 활동을 자제하는 안내가 내려졌다. 학교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지만, 학생들은 실내에 머물러 있도록 했다.



▲ 뿌연 연무에 휩싸인 뉴욕 자유의 여신상. 사진=AP/연합뉴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이같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에어나우에 따르면 이날 뉴욕주 시러큐스 일대의 대기질 지수가 400을 넘어섰다. 에어나우는 100 이상의 수치를 호흡하기에 건강하지 않은 수치로, 300 이상을 ‘위험’ 수준으로 분류한다.

한편 최근 캐나다 동부 지역 산림 지대에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연기가 바람을 타고 미국 쪽으로 날아와 뉴욕은 물론 코네티컷·매사추세츠 등 북동부 일부 지역과 미네소타·위스콘신·일리노이주 등 오대호 연안에선 전날부터 대기 경보가 발령됐다.



사장님,
칭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 메뉴보드, 전단, 명함 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 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